

해 외 출 장 보 고 서

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: “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-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”을 위한 베트남 관계자 협의(이대섭, 최용욱), “개도축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”을 위한 베트남 관계자 협의(이명수 전 차관)

1. 출장 목적

- 농식품 유관기관 패키지형 ODA 발굴을 위한 현지수요 협의
-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 점검

2. 출장 개요

- 출장자, 출장지, 출장기간

출장자	출장지	출장기간
이대섭 연구위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	베트남 하노이 지역	2017. 11. 6. ~ 2017. 11. 9. (3박 4일)
최용욱 초청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		
이명수 전 차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		2017. 11. 6. ~ 2017. 11. 8. (2박 3일)

3. 일정표

No.	일 자	출발지	도착지	방문 기관	수행 업무
1	11.6. (월)	인천 (18:40)	하노이 (21:40)	○ KE679	○ 출국 (이대섭, 최용욱)
2	11.7. (화)	체재		○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○ 베트남 기획투자부	○ 신규 ODA 사업 발굴을 위한 양측 수요 협의 및 현지 여건 조사 (Bui Hai Nam: +84-912-55-7979)
3	11.8. (수)			○ 사업 예정지	○ 하노이 인근 사업 예정 부지 방문 ○ 귀국 (이명수)
4	11.9. (목)			○ 주베트남 대사관 ○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	○ 현지 사업 추진 여건 자문 요청 ○ 신규 ODA 추진 방향 도출
5				하노이 (16:25)	인천 (22:40)

4. 출장 주요 내용

< 주요 내용 >

- **홍강 델타** 지역의 1개 성(province) 대상 **쌀 및 채소류** 가치사슬 강화사업
 - 마스터플랜 수립 (정책 컨설팅) → 시범지구 인프라 구축, 역량강화 등
 - 주요 구성요소는 ① 해안지역 **맹그로브** 식재를 통한 염해방지 ② **쌀**의 생산/가공/유통 가치사슬 개선 ③ **채소**의 생산/가공/유통 가치사슬 개선

□ 국가 전체 대상의 단일작물 가치사슬 개선사업보다 **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가치사슬 개선사업 필요**

○ 남북으로 긴 베트남의 지형적 특성 상 지역별 기후, 품목이 달라 한 지역에 사업을 집중해야 할 필요

○ 베트남의 국가 농업발전전략도 베트남 전역을 7개의 농업 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므로, 지역 기반 사업이 바람직

□ 대상지는 **홍강 델타**의 3개 성(하이퐁, 타이빈, 남딕)중 선정

○ 베트남 측의 주요 관심 지역은 홍강델타, 중부 고원, 메콩델타 3개 지역이며, 이 중 홍강 델타가 본 사업에 적합

○ 메콩델타의 경우 염해, 가뭄 피해가 심각해 이미 WB, ADB 등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임

○ 홍강 델타 지역은 쌀, 채소의 주요 재배지역이나 관개시설 등 인프라가 노후되어 개선 필요

* 홍강델타지역은 여름철 - 쌀, 농한기 - 채소재배 형태의 경작이 일반적이며, 쌀 및 채소에 대한 가치사슬 개선 필요

□ 컨셉노트의 사업내용은 모두 **베트남에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**

- (농지 관련) 농지 규모화는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로 중요한 이슈이며, 농지 은행의 제도화 컨설팅 포함을 요청
 - * 베트남은 모든 농지가 국유지이나, 개인에게 농지 사용권이 있으며 실제로는 개인 간 농지 사용권의 임대와 이루어지고 있음
- (맹그로브 식재) 농지 염해방지, 농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, 농업분야 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
- (가치사슬 개선) 품목을 불문하고 생산 측면에서는 발전을 이루었으나 수확 후 가공, 유통 부문이 여전히 취약해 농가 소득은 개선되지 못함
 - 협동조합이 명목상 존재하지만 경제부문 활동은 미미하며, 투입재 구입이나 생산물 판매는 개별 농가 단위로 진행

5. 기관별 주요 면담 내용

□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1차 면담 (11.7. 09:00~11:00)

※ 국제협력국 양자협력과장 Pham Ngoc Mau 등

- 사업 컨셉노트에 대한 전반적 의견
 - 국가 전체가 아닌, 특정 사업 지구를 지정하여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한 개발을 선호
 - 쌀은 식량안보와 관련된 품목으로,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반면, 상품성이 부족한 현실 또한 존재
 - * 쌀 → 소득 작목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
 - 더운 기후에 적합한 채소류 도입이 촉진되었으면 하는 바램
 - 보관, 가공, 마케팅 등 가치사슬 내 생산 이후 단계의 정책 수요는 특히 강조됨

- 농업인 협동조합이 명목상 존재하지만, 경제부문 활동은 미미하며, 투입재 구입이나 생산물 판매 시 보통 개인단위로 진행
- 사업 시행 시 운영 주체는 사업 성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, 민관협력(PPP)모델도 고려할 수 있음

○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

- 농지제도 개선 부문의 경우, 현지의 특수성을 감안한 농지은행 등의 제도 도입(시범사업 등)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원함

○ 사업예정지 선정 관련

- 사업 추진 시, 예상 수혜 지역의 규모는 추후 조사를 요함
- 후보 대상지는 현재 **홍강 주변 지역**을 우선 고려중이며, 세부 후보지는 추후 현지 조사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
-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의 경우, 지역 선정 과정에서 토지 제공 관련 충분한 협조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

○ 조림사업 관련

- 토지 유실 방지 및 염해 방지를 위해 **해안 지역에 대한 맹그로브숲 조성** 수요가 많으며 관련 협력사업 추진을 희망

○ 베트남 정부의 참여 범위 및 향후 추진 일정 관련

- 베트남 측 역시 소규모의 재정이라도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, 기타 부지, 인력 등의 협조는 최대한 지원할 예정
- 접촉 및 허가절차의 경우 양국 농식품부 담당자를 지정함

□ 베트남 기획투자부 면담 (11.7. 14:00~15:00)

※ 대외경제관계국 Nguyen Yen 부국장 등

○ 현재 진행 상황 협의

-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부족

- 다만 양국 농업부 간 상호 협의도 진행된 바, 적극 협조를 요청

* 한국 측 예산작업을 위해서 MPI의 사업제안서 송부가 필수적임을 강조

○ MPI측은 **원활한 사업 추진 및 승인 확보**를 위한 **당부사항** 설명

- 사업 규모가 큰 것은 승인에 유리하나, 준비의 정밀성이 요구됨

- 특히, 사업으로 인한 예상 성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분명히 할 필요

- 베트남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접근할 필요 존재

- 사업예정지가 선정되었을 경우, 그 지역 기존사업과 조화될 필요

- 베트남 측의 사업승인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원조국에서 편당 관련 사업 승인이 난 상태여야만 함

□ **농협 하노이 지점장 및 코피아 사무소장 면담 (11.7. 15:30~17:30)**

※ 농협 이우식 지점장, 코피아 박광근 소장

○ **농협 하노이 지점 현황**

- 주로 기업금융을 취급 중이며, 소매금융은 소규모로 진행 중

- 베트남 중앙은행에 대한 중계은행으로서의 역할도 수행

- 지점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, 본점 투자 자문 등 역할도 수행

○ **농협 하노이 지점장 의견**

-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베트남 협력 사업에 관심이 많음

- 소액금융 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, 보통 비즈니스 보다는 프로그램적 성격을 띠며, 현지 금융기관과 협력이 필요

- 현재 농협 미얀마 지점의 경우, 자체 법인을 따로 설립하여 현지 은행의 지점망과의 협력을 통해 미소금융을 진행 중임

- CSR 개념을 차용하되, 비즈니스적 성격(손실이 나지 않는 사업 운영)을 유지하는 형태의 미소금융운용이 장기적으로 바람직

- 한국의 중고 농기계 조달 통한 생산 지원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

○ 코피아 베트남 사무소장 의견

- 벼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, 정책적으로 향미, 특수미 등 품질 향상을 도모 중이며, 브랜드화 등 부문 관련 정책 수요 존재
- 단지 조성 시, 맹그로브숲과 연계를 계획할 경우, 벼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며, 과수와 맹그로브의 연계가능성은 확인 필요
- 베트남 달랏(Da Lat) 지역에 일본, 네덜란드 업체가 진출하여 채소 관련 사업을 진행 중임. 첨단 기술도 점차 들어오는 중임
- 산지의 경우, 국가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며, 이에 따라 수요도 많고, ODA 사업의 효과도 클 수 있음
- 과일, 특히 용과나 리치 재배 여건이 좋은 편이나, 투자를 통해 품질관리가 필요하며, 저장시설 운용 시 투자효과 극대화 가능

□ FAO베트남지역사무소 면담 (11.8. 10:00~11:30)

※ FAO 베트남사무소 배종하 소장

○ 사업 기획 시 유의사항

- 베트남 사업의 발굴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
- 농산물 생산은 충분한 상태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농민은 빈곤한 상태에 있어 농가 소득 향상이 필요, 농산물의 수확후관리, 마케팅, 유통 등 밸류체인 강화 접근은 타당함
- 본 사업은 생산, 가공, 유통, 마케팅 등 가치사슬 강화 및 조합 역량 강화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므로 사업수행기관(PMC) 선정 시 시설운영, 협동조합조직, 소액금융 등을 포괄하는 사업수행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음
- * 협동조합, APC 등 농협에서 수행하는 업무 분야가 많으므로 사업 수행 시 농협과의 협의도 필요

○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

- 베트남 내부 승인절차에 최고 1년까지 소요되고 있고, FAO 사업도 승인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음
- 베트남 측은 사업별 매칭펀드(사업비의 2% 정도)를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므로 사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 의지가 높을 수 있음
- 다만 베트남 측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므로 종료 후 방치될 우려는 적음

○ 사업 내용 관련 (농민조합 역량강화)

- 베트남은 면단위 조합을 갖추고 있는 상태(작목반 등)
-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이 영세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
- 사업내용중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사업(농산물 집하장 등)의 추진과 병행하여 조합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바람직

□ 현장방문 : 하이증성 농업국, 채소 가공공장, 농민조합 등 (11.8. 14:00~17:00)

○ 하이증성 농업국

- 농업국장은 농식품부에서 시행한 채소계약재배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술지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음
- 한국의 농업기술 도입에 환영하고 있고, 채소분야에 있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파악
- 하이증성은 농지면적인 84천ha로 인구의 40%가 농업에 종사중
 - * 총면적 : 165,000ha, 총인구 : 170만명, 행정구역 : 시 1, 타운 1, 면 10개
 - ** 주요재배작물 : 파, 당근, 배추, 양배추, 멜론 등
- 많은 농산물이 한국, 일본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고, 농업분야 투자를 기대하고 있음

○ 채소 가공공장 (홍 비엣 컴퍼니)

- 하이증성에서 개인이 운영중인 대규모의 농산물 가공공장으로

- 내부에 세척시설, 선별시설, 포장시설 등 가공기계와 신선 저장을 위한 저온창고 (9개 room; 총 2,000톤 규모)를 갖추고 있음
- 공장은 베트남 내수보다는 수출 목적으로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가공, 저장, 유통하는 것으로 파악
- 인근 농가(300ha, 2000명)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, 계약재배 농가 대상 종자, 농약,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
-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장(10ha)도 존재하며, 연중 4가지 작물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양배추를 식재한 상태
 - * 기존에 벼를 재배하던 지역에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설치하고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음
 - ** 최근 채소 모종 생산을 위한 육묘장을 새로 만들고 있는 상태로 계약재배로 운영중인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됨

○ Xa PHAM TRAN 마을 조합

- ADB사업('10-'15)으로 조합건물과 소규모 가공 창고가 지어졌고 조합은 '14년에 구성됨
- JICA에서도 해당 조합 대상으로 '16~'20년 우수농산물(Basic GAP) 재배기술 전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음
 - * 면적 : 27ha(임대 12ha 포함 40ha 규모), 농가수 : 168가구, 주요 농산물 : 콜라비, 양배추, 수세미 등(여름철 ; 갓, 시금치, 배추 등)
- 조합의 주요업무 : 조합원간 생산량 조절, 수확후관리, 판매 담당
- 마을 인근의 소도시, 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으나 일정한 물량을 규칙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물량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됨
- 조합원 대상 소액금융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
- 조합에 필요한 자금(종자, 농약, 농자재 구입)은 은행 대출 (Agribank, 월 0.8%) 혹은 조합원의 투자에 의해 확보하고, 농산물 판매후 상환함

□ 산림부문 현장방문 (11.8 11:00~19:00)

※ 산림청 유신현주무관, 임업진흥원 공영호 본부장, 남빈 시 Xuan Thuy National Park

- 맹그로브 숲 복원은 토양의 침식을 막고 염분피해 저감, 농경지 보호, 기후변화 대응의 목적으로 **베측 수요가 강하며** 사업 수행을 위한 **기술 및 체계도 갖추어진** 것으로 파악
 - 2만8천ha의 맹그로브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일본 자치단체,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일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- 지역 주민의 맹그로브 숲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며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 중임
- 산림청 측은 양묘장 조성, 숲 조성, 역량 강화 등의 사업개념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였고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
- 농식품부, 산림청 간 융합사업 추진 시 사업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며, 사업수행 시 지방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

□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2차 면담 (11.9. 09:30~10:30)

※ 국제협력국 Ngyuen Anh Minh 부국장, 산림국 Vu Xuan Thon 국장, Vu Van Hung 부국장 등

○ 후보 대상지 관련 논의

- 베트남 측의 주요 관심 지역은 홍강델타, 중부 고원, 메콩델타 3개 지역이며, 이 중 **홍강 델타**가 본 사업에 적합
 - * 메콩델타는 이미 WB, ADB 등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, 홍강 델타 지역은 쌀, 채소의 주요 재배지역이나 인프라가 노후되어 개선 필요
 - ** 또한 EDCF에서 홍강델타 관개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예정이므로 본 사업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기대
- 베트남 측은 후보 대상지로 홍강 델타의 3개 성(하이퐁, 타이빈, 남딕)을 추천함

- * 본래 하이퐁 대신 하이증을 추천하였으나 하이증성에서 '18년 신규사업 추진 예정이므로 중복 우려되어 하이퐁으로 변경

○ 향후 일정 협의

- 11월 내 3개 후보지 현장조사 후 대상지를 확정할 필요
- 이를 위해 베트남 측이 3개 지구의 기초 인프라 여건, 인구 및 농업 기초자료, 농업 가치사슬 현황 등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실시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
- 현장조사 이후 사업 대상지와 사업 내용이 담긴 PCP(Project Concept Paper)를 작성하여 MPI로 제출할 것을 요청
- * 수원총괄기관인 MPI에서 PCP를 승인하여 송부해야 외교부 절차 통과 가능
- 현장조사 이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, 베트남 측 조사팀과 함께 조사할 것을 협의 ('18.1~)
- * 타당성조사 발주기간에 최소 1개월 소요되므로 내년 1월 조사 착수 가능

□ KOICA 베트남 사무소 방문

- 베트남 KOICA는 농업분야 사업으로 라오까이성, 팡찌성 행복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, '19년 신규 후보사업으로 뚜엔강성에 유사한 농촌개발 사업을 1건 추진 중
- KOICA는 사업당 규모를 늘리는 추세이므로 신규사업의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('19년 신규 1~2건)
- 본 사업은 KOICA 사업과 대상지가 다르고 사업의 컨셉도 농촌개발이 아닌 농업 가치사슬 부문이므로 중복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
- 염해방지 및 농가의 소득화 사업은 베트남 측에 필요한 사업이나,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시각에서 농업부문은 우선순위가 낮아 유의할 것을 당부